

북

무일푼으로 지낸 1년 사람의 믿음 배웠다



새책

돈 한푼 안 쓰고 1년 살기

마크 보일 지음

영국 브리스톨에 사는 아일랜드 청년 마크 보일(31)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1년간 돈 없이 사는 실험을 시작했다. 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받지도 쓰지도 않고 살기로 한 것이다. 이 치기 어린 퍼포먼스에 대해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다.

‘돈 한푼 안 쓰고 1년 살기’는 제목 그대로 이 무모한 퍼포먼스의 1년의 기록이다.

돈의 사용을 뛸 수 있으면 줄이는자는 ‘프리코노미’(Freeconomy)운동은 그가 이런 무모한 실험을 하게 된 것은 간디의 책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됐다. 어려서는 프로 축구선수를 꿈꿨고 나아 들어서는 기업인이 되어 큰돈을 벌었다던 그는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거든 당신 자신이 그 변화가 되도록 하여라.”라는 간디의 말에 감명을 받아 돈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자신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기로 한다.

그는 돈 없이 사는 삶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1600파운드(약 30만원)을 썼다. 집은 이동식주택을 인테리어를 통해 공짜로 얻었다. 이동식주택을 주차하는 공간을 빌리는 대로 영국 서부 브리스틀 근처의 유기농장에서 일주일에 3일, 하루 9시간씩 일하기로 했다. 이동식주택에는 화장실도 없었다. 그는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주위에 판자를 둘러쳐 ‘휴메뉴어’(humanure·폐비) 등으로 재생하는 인간의 배설물(排泄物)을 처리했다. 난방은 재생 가스통과 자전거 부품을 이용해 만든 장작 난로로 해결했다.

1년간 돈 없이 산 그의 일상은 이렇다. 매일 아침



‘돈 한푼 안 쓰고 1년 살기’ 퍼포먼스를 실행한 저자 마크 보일.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 대신 팔굽혀펴기로 몸을 훈련을 ‘아생 식량’을 찾아 나선다. 목이버섯을 비롯해 파슬리, 솔잎, 민들레 풀, 새기풀 등 야생 식물과 식료품 가게를 들며 구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고 받은 유기농 채소가 그의 식량이었다.

‘폐비용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야생 회한 열매와 오징어 뼈를 già아서 만든 것을 치약 대용으로 사용했다. 쟁반 아래에서 책을 읽고, 교통수단으로는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 대신 팔굽혀펴기로 몸을 훈련을 ‘아생 식량’을 찾아 나선다. 목이버섯을 비롯해 파슬리, 솔잎, 민들레 풀, 새기풀 등 야생 식물과 식료품 가게를 들며 구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고 받은 유기농 채소가 그의 식량이었다.

그는 이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몸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활은 사서 하는 고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이를 새벽 드론과 눈 내리는 밤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아영의 즐거움, 누군가의 노동으로 생산된 물건들의 소중함, 나누고 배우는 삶의 기쁨도 그가 얻은 수확

이다. 무엇보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고 말한다.

실험을 끝낸 지금도 그는 돈 없이 살고 있다. 돈을 버리고 오직 상호 존중과 배려, 호의로 돌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돈 없이 살기 운동을 하는 프리코노미(www.freeconomy.org)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인류는 오랫동안 돈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사는 기술을 잊어버렸을 뿐이다.”고 답한다.

그는 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지만, 당장 돈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조금 덜 중요한 세상, 돈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와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이 귀중하게 통하는 세상이다.

〈부글books·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舍得있는 방=‘안개등’의 작가 박명희씨의 신작 소설집. 불륜, 이혼, 가부장적 폭력성, 고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해체 위기를 소재로 중년의 고독과 방황,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통속적이고 진부할 수 있는 소재지만,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뻔하지 않은 결말로 소설을 이끈다. ‘봄눈’ 등 8편의 중단편을 담았다. 〈문학의 문학·1만1000원〉



▲권력지도=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의 33인=워싱턴 특파원 출신 이상일씨가 베락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 정가 파워 엘리트 33인을 소개한다. 공식 정보를 넘어 개인적 습관, 성장과정, 업무 스타일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랩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 등 시카고 사단으로 불리는 오바마측근 그룹과 더불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문·1만4500원〉



▲탄착점=전재 스나이퍼가 대통령 암살미수 범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린 소설. 영화 ‘더를 타겟’의 원작으로 ‘밥 리 스웨거’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이다. 현재적인 저격수 스웨거와 그를 겸은 음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두뇌싸움을 다룬, 박진감 넘치는 소설이다. 〈시공사·1만6000원〉



▲악의 종말=인간의 잔인성에 대해 연구해온 독일의 심리학 및 뇌 연구자 폴프 데겐이 연구와 실험으로 발견한 학술적 정보를 바탕으로 악의 유래와 신의 정의로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진화생물학·행동생물학·뇌과학·심리학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악을 구별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사회적 산물이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문미디어·1만3500원〉



▲여왕님과 나=‘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의 작가 우타노 쇼고의 신작 미스터리 소설. 히코모리·오타쿠·풀리콤·페도필리 등 이 시대 신종 인간 유형들이 뇌를 자극하는 충격적인 서스펜스 ‘살인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개, 수수께끼에 쌓인 개성적인 등장인물 등 ‘미스터리의 귀재’라 불리는 작가 특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한스미디어·1만3000원〉



▲매천 황현을 만나다=‘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1855~1910년)의 삶과 사상을 담았다. 광양제철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는 이은철씨가 한말의 문장가이다. 애국지사로 일반인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비범한 인물로 알려져 있던 황현의 인간적인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첫 순자를 본 뒤 기쁨에 겨워 순자를 무릎에 앉고 시를 짓는 등 인간미 넘치는 선생의 생애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심미안·1만5000원〉

〈부기·1만6000원〉

200년전 ‘종의 기원’ 쓴

인간 디원을 만나다



200여 년 전 인간 기원의 수수께끼를 밝힌 ‘종의 기원’을 출간,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는 찰스 다윈(1809~1882년).

다윈에 관한 한 최고의 연구가로 꼽히는 세계적 석학 재닛 브리운 하버드대 교수가 일기·자서전 등 방대한 문헌과 독보적인 연구를 통해 ‘종의 기원’과 다윈의 삶을 복원해낸 ‘찰스 다윈 평전 1, 2’를 출간했다.

저자는 1권에서 다윈의 탄생부터 평범한 젊은이가 비글호의 뛰어난 박물학자로 되기까지, 2권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종의 기원’ 출간부터 ‘진화’를 둘러싼 논쟁과 말년의 삶을 생생하고 대담한 필치로 완벽하게 재현했다.

〈김영사·각권 3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

한창훈 지음

요즘 소설가 한창훈(47)처럼 맛나게(?) 사는 사람도 드문 것 같다. 여수 거문도에서 태어난 그는 일곱 살에 뉘시를 시작했고 아홉 살에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디제이, 트럭운전사, 커피숍 주방장, 선원, 막노동꾼, 포장마차 차장을 거쳐 전업작가가 됐다. 그렇게 한참을 물에 나와 살다가 4년 전 고향 섬마을로 돌아왔다. 이제는 낮에는(때로는 밤에도) 고기 잡고, 밤에는 글을 쓴다.

산문집 ‘한창훈의 항연’을 통해 섬살이의 즐거움을 전했던 그가 이번에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야기로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를 냈

해산물 채집과정에서 요리까지 ‘현대판 자산어보’

한창훈 지음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책은 손암 정약전이 쓴 해양생물 박물지 ‘자산어보’를 닮아있다.

갈치·문어·불락·노래미·봉장어·참돔·하.Globalization·성게·가자미·해삼……. 책에 등장하는 해산물들은 이것이 다 바다에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다. 또 그 이름만으로도 끌고, 침을 삼키게 만든다.

스스로를 ‘생계형 낚시꾼’이라고 말하는 한씨는 잡기와 채집과정, 요리까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삼고 다른 이들의 어듯하거나 재미난 사연을 곁들여 글의 재미와 깨미를 냈다.

의숙한 해산물들에서부터, 처음 보면 까여야 할지 깨여어야 할지, 음식인지 돌덩이인지 당초 어리둥절한 ‘거북손’, 건드리면 보라색 체액을 쏟아내는 ‘군소’ 등 섬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도시인들

의 눈에는 마냥 신기하기만 한 해양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식탁에서 그저 식재료로만 여겼던 온갖 것들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얻어 고유한 이력과 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해산물 맛있게 즐기는 요령과 섬사람들의 상차림 또한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저자는 “사실 이것, 말 안 해주고 싶다. 두고두고 나만 먹고 싶다”며 능청을 펼면서도 각 해산물들의 진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궁극의 상차림을 두려두려 털어놓아 읽는 이의 오감을 자극한다.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말은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말보다 더 불쌍하다”는 저자의 말은 도시 촌놈들을 대놓고 놀리는 듯하다.

어쨌든 풍성하고, 술 맛나게하는 책이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장께서 종묘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3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인생 열쇠

e-편한세상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80%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만 원

■ 주변 쇼핑센터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 가치 상승 기대 최근 대림 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장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친사를 받고 있는 대단지 명품 아파트임.

■ 탑공인증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

현대공인증개사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 준 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수동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시지가 6억, 대출 3억~3·5천만원 가능